



도는 29일 올림픽운영국장에 최명규 전 동계조직위 숙박국장을, 원주부시장에 서경원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을 발령하는 등 실·국·과장, 부단체장 9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봉헌 총무행정관**

김봉헌(57) 총무행정관은 “도정 각 부처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 춘천 출신. 성수고, 강원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 관광개발담당, 관광시설유지담당, 관광시설담당, 투자유치2과장, 교육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등을 역임.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56)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역설. 정선 출신. 중국지린대동북아연구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중국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장, 도 국제협력담당, GT박람회 추진담당, 도 통상지원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조미애씨와 1남2녀.



**장대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장대순(5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은 “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 강릉 출신. 강릉상고, 관동대,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 환경정책과, 예산담당관실, 관광개발과, 보건위생과를 거쳐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정선부군수, 도 경제정책과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심복춘씨와 1남1녀.



**김종철 도보건의환경연구원장**

김종철(58) 도보건의환경연구원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연구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춘천 출신. 성수고, 강원대 토목공학과, 강원대 환경공학 대학원을 졸업. 도보건의환경연구원 먹는다물분석과장, 환경연구부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박상희씨와 1녀.



**홍천식 속초부시장**

홍천식(54) 속초부시장은 “지역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 정선 출신. 부산기계공고, 강원대 독일어과를 졸업. 1988년 정선에서 공직에 입문, 강원도 고시계장, 인사계장, 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보정씨와 1남1녀. 취미는 등산.



**최봉길 영월부군수**

최봉길(58) 영월부군수는 “지역들의 역량을 결집, 영월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영월 출신. 영월중, 영월고를 졸업. 도 감사관실 회계감사팀장, 삼척시 미래전략과장, 도 사회적경제과장, 영월고 총동정회장, 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서은주씨와 1남1녀. 취미는 테니스, 등산.



**최명규 동계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57) 동계올림픽운영국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범업 확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 정선 출신. 정선중고를 졸업. 기업유치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지사 비서실장, 자치행정과장, 2018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숙박국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조은희씨와 1남1녀.



**전장준 기획관**

전장준(55) 기획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 화천 출신. 영동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 도 기획담당, 환동해본부 총무담당, 디엠제트박물관장, 2018동계조직위 숙박부장, 인제부군수, 도 관광마케팅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문장숙씨와 1남2녀.



**박재복 녹색국장**

박재복(55) 녹색국장은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고, 산림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 속초 출신. 속초고, 방송통신대, 강원대·길림대 대학원을 졸업. 미국 오를리호마(OSU) 주립대 국외연수. 주 김립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장, 관광시설인 허가지원담당, 관광개발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윤정민씨와 2남.



**계재철 농정국장**

계재철(57) 농정국장은 “도민들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도는 농축산물에 대한 판로지원으로 농가소득에 집중하겠다”고 다짐. 원일 출신. 신철원중학교를 졸업. 도 축산경영담당, 축산유통담당, 축산진흥과장, 축산과장, 유통원에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선희씨와 2남.



**서경원 원주부시장**

서경원(57) 원주부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원주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강조. 철원 출신. 신철원중고를 졸업. 도청 내 경제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실력파. 도인재개발원 교육연구실장, 철원부군수, 경제정책과장, 글로벌사업담당, 경제진흥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박승분씨와 1남2녀. 취미는 불교. 취미는 등산.



**김태훈 삼척부시장**

김태훈(50) 삼척부시장은 “삼척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삼척 출신. 강릉고, 육군사관학교, 숭실대 평생교육과(박사) 졸업. 안전행정부 인력개발팀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 경기도 보육정책과장, 도자원개발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홍희정씨와 1남.



**신주호 정선부군수**

신주호(52) 정선부군수는 “그동안 공직 경험을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다짐. 고성 출신. 강원시대부고, 이주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 기획관리실 기획담당, 글로벌사업단 국제기획담당, 한국어성수원원장, 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 도 글로벌투자통상국 레고랜드 지원과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미희씨와 2남.



**박흥용 도인재개발원장**

박흥용(58) 도인재개발원장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내 공무원들의 정책수행 역량 강화를 돕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다짐. 삼척 출신. 한국방송통신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 관광마케팅팀장, 문화예술과장, 고성부군수, 도의회 의사관, 보건의복지여성국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진옥씨와 2남.



**박종훈 재난안전실장**

박종훈(57) 재난안전실장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재해 없는 강원,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 춘천 출신. 춘천고, 강원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평가준비부장, 심사준비부장, 기업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말희씨와 1남1녀.



**고영선 도의회사무처 의정관**

고영선(54) 도의회사무처 의정관은 “도의회와 집행부간 교류 역할을 통해 생활복지 확산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 춘천 출신. 성수고를 졸업. 도지사 비서관, 2018동계올림픽추진본부 총괄기획담당·총괄기획과장,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장, 도의회 홍보담당관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정영민씨와 2남.



**박재명 건설교통국장**

박재명(57) 건설교통국장은 “도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원주 출신. 원주 전광고, 방송통신대, 중앙대 대학원을 수료. 주택담당, 시설안전담당, 시설과장, 시설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축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종화씨와 2녀.



**송영선 태백부시장**

송영선(58) 태백부시장은 “낙동강 물길 복원사업과 아라트 신축사업 등 지역경제와 지역발전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다짐. 태백 출신. 삼척고를 졸업. 태백시 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서정현씨와 1남1녀.



**고석두 홍천부군수**

고석두(58) 홍천부군수는 “꿈에 그리던 전원도시 홍천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 홍천 출신. 홍천고 1회 졸업. 1977년 황성군 청일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 홍천군청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DMZ박물관장, 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을 역임. 가족은 부인 원영민씨와 1남1녀. 취미는 배드민턴.



**홍성호 고성부군수**

홍성호(55) 고성부군수는 “고성군을 통일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 횡성 출신. 대성고, 강원대 무역학과를 졸업. 산업경제국 판로지원담당, 기획관리실 교투협력담당, 환경관광문화국 공원관리담당,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 동계올림픽조직위 배뉴운영기획부장을 역임.



## 유재봉 도의회 사무처장 이사관 승진

### 도 실국장·과장급·부단체장 인사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

재난안전실장 박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원 인재개발정책관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에서 복귀하는 한원석·김만기 국장은 각각 보건복지여성국장과 2018 동계 조직위 국장요원으로 발령됐다. 최성철 도의회 의정관과 김길수 재난안전실장, 이승섭 경자청 행정개발본부장, 박근영 총무행정관, 최정집 비서실장은 장기교육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의 이동으로 생긴 자리는 승진자들로 채워졌다. 박중훈 안전총괄과장이 재난안전실장,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재복 관광개발과장이 녹색국장, 장대순 경제정책과장이 경자청 행정본부장, 김봉현 문화예술과장이 총무행정관, 전창준 관광마케팅과장이 기획관, 고영선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이 의정관, 계재철 유통유통과장이 농정국장, 박재명 건축과장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이 보건환경연구실장으로 각각 승진 임용됐다. 비서실장은 안성배 정부비서관을 임명했다.

부단체장은 교육에서 복귀하는 서경

원 국장이 원주시 부시장, 송영선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이 태백부시장, 흥천식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이 속초부시장, 김태훈 자원개발과장이 삼척부시장, 고석두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이 흥천부군수, 최봉걸 사회적경제과장이 영월부군수, 신주호 레고랜드지원과장이 정선부군수, 홍성호 2018 동계조직위 메뉴운영기획부장이 고성부군수로 각각 임명됐다. 백오인 ▶관련기사 5·10·11면

### 도-조직위-개최 시·군

### 테스트이벤트 합동 평가

강원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올림픽 개최 3개 시·군이 29일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결과를 토대로 새해 대회 현안을 점검했다. 도와 조직위, 강릉·평창·정선 등 개최 시·군은 29일 평창조직위 대회의실에서 '빅에어·쇼트트랙 월드컵대회 합동평가회의'를 개최, 지난달과 이날 각각 열린 두차례의 테스트이벤트를 총괄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직위는 메뉴운영과 경기, 시설, 정보통신 분야 별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김여진

강원도는 29일 유재봉 도의회 사무처장을 이사관(2급)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실·국장급과 과장급, 부단체장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설되는 올림픽운영국장은 안전자치행정국장과 동계조직위 숙박국장을 역임한 최명규 국장이 발령됐다. 최문순 지사가 회장을 맡으면서 인사요인이 발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관리국장에 허해구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을 파견했다. 조인목 녹색국장은 강원테크노파크로 파견, 발령됐다. 또 박홍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인재개발원장, 박병진 건설교통국장이 강원발전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노재수 올림픽본부장이 인재개발

# 국장급 새 진용 구축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올인'

고참 국장들 본청서 대거 퇴진  
관계개고 승진 임명 파격 인사  
8개 지역 시·군 부단체장 교체  
도 "일·성과 중심 인사 단행"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강원도는 29일 단행한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본청 국장급 진용을 새롭게 구축했다. 최문순 지사는 2017년이 동계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올림픽 준비에 올인할 수 있는 인물들로 참모진을 구성했다. 새로운 진용 구축을 위해 교육 파견자들도 기존 국장들을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년이 퇴직하는 68년생들이 산하기관 및 외곽기관으로 파견하는 등 주요 업무에서 손을 놓았다. 강원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원중 경제진흥국장을 유일하게 본청에 남겼다. 고참 국장들이 비운 본청 국장 자리는 이번엔 승진한 인사들이 차지했다. 10명의 국장급 승진자 가운데 장기교육 파견

이 확정된 최정집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본청 국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과 농정국장은 그동안 토목직과 농업직이 임명되던 관례를 깨고 건축직과 축산직이 임명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원주시를 비롯해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흥천군,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등 8개 시·군의 부단체장도 새인물로 교체됐다.

최문순 도정 후반기를 맞아 최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비서실장으로 안성배 비서관을 승진, 발탁하면서 친정체제를 보다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 글로벌 통상·교류 강화 등을 위해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백오인





**유재봉 (58)** 도의회 사무처장은 철원 출신으로 철원고를 졸업했으며 경제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총무행정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계재철 농정국장**



계재철 (57) 농정국장은 철원 출신으로 신철원중고와 강원대를 졸업했다. 사료담당, 축산유통담당, 축산경영담당, 축산담당을 지낸후 과장으로 승진해 축산진흥과장과 축산과장, 유통유통과장을 거쳤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56)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정선 출신으로 길림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장과 국제협력담당, 지역협력담당, 법제담당 등을 거쳐 GTI박람회추진단장, 통상지원과장으로 일했다.

**전창준 도 기획관**



전창준 (55) 도기획관은 화천 출신으로 화천실업고를 졸업했다. 기획담당과 평가관리담당, 환동해출장소 총무담당, 디에프트박물관장 등을 거쳤으며 2018조직위 수송숙박부장과 인재부군수, 관광마케팅과장 등을 지냈다.

**노재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정책관**



노재수 (58)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정책관은 영월 출신으로 방송대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문화예술과장과, 도지사 비서실장, 정보화담당관, 평창부군수, 예산과장을 거쳐 동계올림픽본부장을 역임했다.

**송영선 태백부시장**



송영선 (58) 태백부시장은 삼척 출신으로 삼척고를 졸업했다. 태백시 자치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 일했고 민원지원부장, 기획정책부장,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최봉길 영월부군수**



최봉길 (58) 영월부군수는 영월 출신으로 영월고를 졸업했다. 도보도지원담당과 공직윤리담당, 회계감사담당, 농촌정책담당 등을 두루 지냈고 삼척시 미래전략국장을 거쳐 사회적경제과장을 역임했다.



**최명규 (57)** 올림픽운영국장은 정선 출신으로 정선종합고를 졸업했다. 자치행정과장과 기업유치과장, 도지사 비서실장, 안전자치행정국장을 거쳐 2018동계조직위 숙박국장을 역임한 후 장기교육에서 복귀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57) 건설교통국장은 강릉상고와 관동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택담당, 안전관리담당, 시설안전담당, 주택관리담당, 건축담당을 거쳐 건축주택과장과 건축과장을 역임했다.

**오원중 경제진흥국장**



오원중 (58) 경제진흥국장은 인제출신으로 인제중고를 졸업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전략기획팀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1과장,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기획행정과장, 관광마케팅과장을 지냈다.

**고영선 도의회 의정관**



고영선 (54) 도의회 의정관은 춘천 출신으로 성수고를 졸업했다. 도지사 비서관과 주민생활봉사담당, 기업유치정책담당, 해운항만과장 등을 거쳐 동계올림픽본부 총괄기획과장과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을 역임했다.

**조인목 강원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



조인목 (58) 강원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은 강원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복지정책과장, 정선군 부군수, 투자유치과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녹색국장을 역임했다.

**홍천식 속초부시장**



홍천식 (54) 속초부시장은 정선 출신으로 부산기계공고와 강원대를 졸업했다. 2014동계유치위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규제분권담당, 교육고시담당, 인사담당 등을 거쳐 해양항만과장을 역임했다.

**신주호 정선부군수**



신주호 (52) 정선부군수는 춘천 출신으로 춘천제일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2018동계유치위 실사준비팀장, 국제기획담당, 한국여성수련원장 등으로 근무했고 의회사무처 경제건설전문위원, 레고랜드지원과장을 지냈다.



**박흥용 (58)** 인재개발원장은 동해출신으로 북평고, 방송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화예술과장과 관광마케팅팀장, 고성부군수, 경제정책과장, 의회사무처 의사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지냈다.

**박중훈 도 재난안전실장**



박중훈 (57) 도재난안전실장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4동계유치위 홍보제작팀장, 2018유치위 평가준비부장으로 근무했고 문화예술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역임했다.

**이규은 올림픽운영국 건설추진단장**



이규은 (58) 올림픽운영국 건설추진단장은 홍천 출신으로 홍천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과, 도시토목담당 등을 거쳐 동계올림픽 시설1과장 직무대리와 설상시설과장, 건설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장대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장대순 (5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제일고와 관동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관광개발담당과 재정지원담당, 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정선부군수와 경제정책과장으로 일했다.

**이진홍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이진홍 (58)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은 상지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 총무과장, 2013평창동계스피셜올림픽조직위,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장을 거쳤다.

**김태훈 삼척부시장**



김태훈 (50) 삼척부시장은 삼척 출신으로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와 인력개발기획과, 재난안전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8평창조직위 배뉴운영기획부장을 거쳐 도자원개발과장으로 일했다.

**홍성호 고성부군수**



홍성호 (50) 고성부군수는 횡성 출신으로 대성고와 강원대를 졸업했다. 공원관리담당과 현안사업담당, 안전재난기획팀장, 홍보기획담당 등을 거쳐 2018평창조직위 배뉴운영기획부장으로 일했다.



**한원석 (57)**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평창 출신으로 대관령축산고와 방송대를 졸업했다. 고성부군수, 복지정책과장을 거쳐 국장급으로 승진후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장을 수료하고 복귀했다.

**박재복 녹색국장**



박재복 (56) 녹색국장은 속초 출신으로 방송통신대와 강원대, 김립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길림성 도경제무역사무소장, 경제정책담당으로 일했고 강원랜드 협력관,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장, 관광개발과장을 지냈다.

**김봉현 도 총무행정관**



김봉현 (57) 도총무행정관은 춘천 출신으로 성수고와 강원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춘천시 강남동장과 도관광시설유치담당, 관광시설담당 등을 거쳐 투자유치2과장, 교육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을 역임했다.

**허해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장**



허해구 (5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장은 동해 출신으로 경기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자치부 복지정책관, 윤리담당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서경원 원주부시장**



서경원 (57) 원주부시장은 철원 출신으로 신철원종합고를 졸업했다. 철원부군수와 경제정책과장을 거쳐 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경제진흥국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연구소에서 장기교육을 받았다.

**고석두 홍천부군수**



고석두 (58) 홍천부군수는 홍천 출신으로 홍천고를 졸업했다. 홍천군 재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경제현안사업추진단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DMZ 박물관장, 도교육지원과장을 지냈다.

**안성배 비서실장**



안성배 (44) 비서실장은 한양대와 추계예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민예총 정책실장과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정책실장을 거쳐 안민식·도종환·박은수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정부비서관에서 비서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 27대 건설협회장 유주현 대표 당선

(신한건설)

### “건설산업 재도약 총력”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이사가 제27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2016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열어,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이사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터뷰 8면

유 대표는 참석구성원 143명 가운데 102표를 얻어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경선을 벌인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대표는 40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1표였다.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 구성원 149명 중 143명이 참석했다. 유주현 후보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 당선인은 “협회장으로 선출돼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힘써달라는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3년간 모든 열정과 경험을 바쳐 건설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자는 2017년 3월1일



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 단임으로 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유 당선자는 지난 1993년부터 20여년간 건설협회 업무를 맡아왔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운영위원으로 건설협회 업무에 첫발을 내디딘 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협회 경기도회 18·19대 회장을 역임했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 대한건설협회 회원감사 및 회원 이사를 거쳐 올해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유 당선자는 회장직에 출마하며 △낙찰률 상향 등 공사비 제값받기 △노후 인프라 재시설 등 새로운 건설시장 발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폐지 등 왜곡된 건설시장 바로잡기 △법정 기술자 보유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에 애로사항 해결 △원로회의 신설 등 회원사 협회 참여 확대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유관기관 합리적 운용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상준기자 newspia@

## 건설수주 한 달 만에 감소세 전환

지난달 11조9403억원  
전년 동월보다 9.7% 줄어  
건설기성 10兆... 증가폭 확대

건설수주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축부문의 증가폭이 둔화된 데다 토목부문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수주(경상)는 11조9403억원으로 전년 동월(13조2260억원)보다 9.7%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올 8월 전년 동월 대비로 54.9% 증가한 이후 9월 40.0% 감소하고 선 10월 들어 42.9% 증가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10조608억원으로 전년 동월(9조6652억원) 대비 4.1% 증가했지만 토목부문이 1조8795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5609억원)에 비해 반토막났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이 2조8304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2965억원)보다 14.1% 줄었고 민간부문도 9조382억원으로 전년 동월(9조3694억원) 대비 3.5% 축소됐다.

건설기성은 증가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건설기성(불변)은 10조938억원으로 전년 동월(8조192억원)보다 25.9%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올 9월 전년 동월 대비로 9.4% 증가한 이후 10월(17.8%)과 11월에 걸쳐 증가폭이 커졌다.

건축부문이 7조1877억원으로 전년 동월(5조4650억원)보다 31.5%, 토목부문이 2조9061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5541억원) 대비 13.8% 늘어났다.

한편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이 7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경남기자 knp@

# 새해 20조 더 풀어 景氣 살린다

정부가 경기·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미래대비를 내년 경제정책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일자리 등 민생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해 2%대 중반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상적인 성장경로 복구를 위한 카드로는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재정 조기집행,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유형 발굴, 해외 인프라 시장 진

### 2017 경제정책 방향

내년 성장률 2.6%로 낮춰 추락하는 경기 회복위해 재정보강·SOC투자 확대 건설투자는 4% 성장 전망

출 등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3·14면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0%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2%대 중반의 성장세는 유지하겠지만 내수 회복이 더디지며 경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과 토목의 증가폭 축소에도 선행지표 호조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존 전망치(2.5%) 대비 1.5%포인트 높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에 비해 건설투자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등 내수 회복세 제한이 불가피한 탓에 정부는 재정이 경제 역동성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전략을 짰다.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SOC(사회기반시설)·안전 투

자 확대, 친환경 투자 촉진, 전략적 해외 진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3조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상향(3조원), 공공기관(7조원), 정책금융(8조원) 등 20조원 이상 규모의 가용 재원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9월까지 복합·연계시설 등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마련하고 KIIP(한국인프라투자 플랫폼)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SOC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 설비 등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 “공사비 제값받기·건설新시장 창출에 모든 역량 쏟겠다”

##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40년 가까이 오직 건설업 한 길만을 걸어 왔다. 대한민국 최고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할 수 없는 영광이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앞으로 2~3년은 건설산업이 재도약하느냐, 사양산업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회원사 권익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 맨 앞자리에 서서 회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사측생의 정신으로 선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끝까지 선전해 준 권력은 후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 함께라는 협회를 만들겠다.

## 대한건설협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70년 역사를 가진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을 대표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나 또한 역대 회장들이 쌓은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회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국가와 건설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회원사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특히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새로운 물량 창출에 앞장서겠다. 건설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체의 육성과 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꾀하겠다.

아울러 대·중소업체 구분없이 회원사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업무를 발굴해 나가겠다. 업계의 지속 발전을 가져올 선진제도 연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위기와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건설산업은 중저대환 기로에 서 있다. 국가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건설투자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 성장을 이끌어 왔던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수주는 과거 7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그 3분의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더구나 국내 정치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것도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물량 부족이다. 최근 몇년간 복지 예산 확대를 이유로 건설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국민 생활 친화적이며, 국민 안전과 맞닿아 있는 산업이다. 때문에 건설 인프라는 미래를 위한 복지다. 또한 건설 인프라는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다. 건설과 복지는 같

## 40년간 오직 건설 한길만 걸어와 건설협회 수장으로 선출 큰 영광

## 앞으로 2~3년 건설업 중대기로 '사측생'의 정신으로 선두에서 권익 보호·불합리한 제도 개선

## 대중소 구분없이 회원사 목소리 귀 기울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로자문회의 신설 자문 구할 것

은 복지의 개념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켜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제도 개선, 정부 정책 지원 등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체 해외진출 초기 비용 지원, 해외사업 다각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둘 생각인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값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는 최저가입찰제 폐지, 표준시장단가제 도입으로 제값 주는 정책을 표방하고는 있다.

은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나는 기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기업은 이윤이 생겨야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기술개발 등 투자도 할 수 있다. 고용창출도 마찬가지다. 공사비를 제대로 안 주면, 결국 소비는 줄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정책 담당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사비는 제값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내세워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둘째, 왜곡된 건설시장을 바로잡고 새로운 건설시장을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건설시장은 현재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논리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 마찬가지로 소방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도 적극 막겠다. 이를 위해 업역제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건설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 문제를 범제화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통일에 대비해 북한 수주전략을 마련하겠다. 주택, 부동산, 소규모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셋째, 업계 숙원사업과 대·중소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우선 기술자 보유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체 부담을 덜어 주겠다. 업역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을 허용해 대·중소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넷째, 유관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이끌겠다. 건설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해 수수료율 인하를 관계자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 기능도 더욱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협회 회원사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협회를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다. 원로자문회의를 신설해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 또 대형건설사의 협회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협회 조직을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춰 개편하겠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 실질적



유주현 당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li> <li>1976년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li> <li>200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산업대학 고전학과 ACPMP 1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li> <li>2005~2008년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li> <li>2003~2009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18·19대 회장</li> <li>2006~2009년 대한건설협회 회원부회장</li> <li>2007~2009년 경기도 건설단체연합회 회장</li> <li>2009~2012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의원</li> <li>2012~2015년 대한건설협회 회원감사</li> <li>2012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명예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li> <li>1993~1997년 건설협회 경기도회 간사</li> <li>1997~2009년 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li> <li>2003~2016년 건설공제조합 대의원</li> <li>2003~2006년 대한건설협회 본회 이사</li> <li>2003~2006년 제14대 중소기업업 육성</li> </ul>	